

September 25, 2006

세계일보

“해외로... 우군 규합... 민심 탐방”

한나라 대선 예비주자 주말 3색행보

한나라당 예비 대선주자 박3가 주말 '3색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외국방문길에 올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뉴라이트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 손학규 전 경가지사는 민심탐방을 계속했다.

박 전 대표는 독일 아데나워재단 초청으로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출국했다. 그는 25~26일(현지

박근혜, 벨기에·獨 방문 길 올라

이명박, 신노동연합 출범식 참석

손학규, 남원서 벼베기 봉사활동

시간)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간부들과 만난다. 한·EU 간 통상확대 방안과 한

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표는 28일에는 베를린에서 독일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면담한다. 29일엔 196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 간호사 출신 교포 등이 참석하는 재독한인회 주최 환영회에 참석한다. 이 전 시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보수 계열 노동단체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전 시장은 축사에서 "새로운 노사 관계를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뉴라이트 신노동연합이야말로 고대하던 '육동자'일 수밖에 없다"고 출범을 환영한 뒤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일자리라는 생명수로 대한민국의 독을 가득 채워달라"고 당부했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100일 민심대장정'을 이어갔다. 24일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계암마을에서 벼베기 봉사활동을 했다. 원재연 기자

September 25, 2006

세계일보

Übersetzung

„Auslandsreisen, Zusammenhalt und Besuch auf dem Land“

Park Geun-hye, Reise nach Belgien und Deutschland
Lee Myong-bak, Teilnahme an einem neuen Arbeitsverein
Sohn Hak-kyu, Arbeit auf einem Reisfeld in Namwon

Auf Einladung der Konrad-Adenauer-Stiftung reiste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Park nach Belgien und Deutschland. Sie wird die NATO und die EU besuchen und mit der ersten deutschen Kanzlerin Angela Merkel Gespräche führen.

Der ehemalige Seouler Bürgermeister hat an der Gründungsfeier der „New Right – neuer Arbeitsverein“ teilgenommen.

Sohn Hak-kyu besuchte Namwon und half auf einem Reisfeld, Getreide zu ernten.